

다문화사회 진입에 따른 이주민 선교의 특성과 한국교회의 대응방향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Immigrant Mission and the Korean Church's
Strategies for it in a Multicultural Society

정봉현 (Bonghyun Jeong)
(전남대학교 교수, 종교문화연구소장)

<목 차>

- I. 서론
- II. 이주민 선교와 다문화사회의 개요
- III. 이주민 선교의 특성과 문제점 분석
- IV. 이주민 선교를 위한 한국교회의 대응방향
- V. 결론
- * 참고문헌

I. 서론

국제사회에서 신자유주가 새로운 조류로 정착되어 자본과 노동시장의 세계화가 촉진되고 많은 근로자들이 해외에 취업하는 이주시대가 도래하였다. 이에 따라 세계 주요 국가와 도시들은 다문화사회로 급속히 변모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미 다문화사회로 진입했다. 2014년도 한국거주 외국인인 약157만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약 3.1%를 점유하고 있다¹⁾. 그 비율은 매년 증가해서 인구추계를 보면 2050년에 전체인구 10%의 이주민이 한국에 거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민의 증가 현상은 한국사회는 물론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은 내부적으로 출산율의 저하, 급격한 고령화 현상, 노동인구의 감소와 남녀 성비 불균형으로 외국인 근로자 및 국제결혼이 증대되어 국내 이주민은 크게 증가하였다²⁾. 저개발 국가의 빈곤, 기아, 개도국의 인구급증, 경제 강대국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는 인구의 국제적인 이동과 더불어 대중매체, 문화의 국제화를 촉진시켜 국제 인구의 이동에 기여했다.

급속한 이주자의 증가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대응전략의 미흡은 다양한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다. 한국의 다문화사회에서 다양한 갈등들이 유발되고 있으며, 인권문제와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있다. 한국은 아직도 다문화사회의 초기단계에

1) 최신일, 황병준(2015), pp.596-597.

2) 서연숙(2014), p.483.

있어서 갈등문제들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나, 해외 다문화국가들은 소수민족의 폭등 및 종교 간 갈등문제로 사회적인 불안이 점증하고 있다. 한국도 다문화사회에 진입하여 점차 이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들이 노정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경제적인 관심사도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의 다문화현상은 이주 노동자의 유입, 국제결혼에 의한 이주여성의 증대 및 다문화가정의 자녀 출산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이주민 증가와 더불어 국가차원의 지원부족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가 야기되는 현실에서 이주자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국가사회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이상의 배경 하에, 이주민에 대한 한국교회의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은 사회통합과 지역사회의 발전은 말할 것도 없고 선교적 차원에서도 아주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을 사례로 이주민 선교의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종합적인 대응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중요한 연구내용은 서론, 이주민 선교와 다문화사회의 개요, 이주민 선교의 특성과 문제점 분석, 이주민 선교를 위한 한국교회의 대응방향,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관련연구의 문헌고찰, 보고서·통계자료의 분석 및 관련전문가 의견 청취 등의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II. 이주민 선교와 다문화사회의 개요

2.1. 이주민 선교의 개요.

1) 이주민과 이주민 선교의 개념

이주민은 다른 곳으로 옮겨 가서 사는 사람, 또는 다른 지역에서 옮겨 와서 사는 사람을 의미하며, 이주자와 유사한 용어이다³⁾. 한국에서 이주민(immigrants)은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 주민 혹은 새터민, 유학생, 입양자, 난민, 동포 및 불법체류자와 이들 가정의 자녀를 포함한 사람을 뜻 한다⁴⁾. 여기에서 불법체류자와 그 가정을 이주민의 범주에 포함하는 이유는 합법적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의 80%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불법 신분의 영향으로 한국사회에서 차별받고 어려움으로 심각한 갈등을 겪으며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현재 불법 체류자의 신분이지만 미래에는 한국인이 될 가능성이 있어 이주민에 포함시킨다.

이주민 선교는 이주민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들을 대할 때에 성경적인 교훈대로 자신처럼 사랑할 존재로 깨닫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형상, 나라 및 자녀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방안이다⁵⁾. 또한 창조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길이 오직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사건과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진리임을 전하여 결국 이주민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도록 섬기는 모든 제도적·사회적·문화적·물질적·인적·영적 노력을 포

3) 네이버 사전 <http://krdic.naver.com>

4) 정미경(2012), pp.24-26.

5) 정미경(2012), pp.24-26.

함하는 총체적인 사역을 의미한다⁶⁾.

2) 이주민의 성서적 개요

구약 성경에서 이주자와 동일하게 사용된 용어는 ‘나그네’, ‘이방인’, ‘타국인’ 등으로 히브리어로 게르(Ger), 토샤브(Toshab), 네카르(Nekar), 자르(Zar) 등이 사용됐다⁷⁾. 게르는 자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있는 존재로서 모국을 떠나 외국에 장기간 체류하는 반영구 체류자를 말한다. 게르는 전쟁, 기근 또는 가난 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타국에 정착하여 살면서 그 땅에 동화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토샤브는 게르와 엄격한 구분은 힘들지만, 타국에서 함께 사는 체류자로서 사회적으로 착취당한 상태의 ‘거류민’으로 번역된다. 자르는 ‘이상한, 불법의’라는 의미로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이나, 외국에서 온 종교행위를 가르킨다. 자르는 이스라엘과 구분되는 외국인을 의미한다. 다양한 차원에서 구약에서 언급하는 이주민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보호하고 돌보아야 할 대상으로 설명되고 있다(출 20:21).

신약성경을 보면, ‘이방인’과 ‘나그네’를 프로세르토(Prosertos), 제노스(Zenos), 파라피네모스(Para-pinemos)로 사용한다. 프로세르토는 구약 게르와 동일하게 ‘유대교 개종자’를 의미한다. 제노스는 나그네를 뜻하며 남의 땅에서 아무 권리없이 떠돌아 다니는 사람이다. 파라피네모스는 주로 거주하는 이방인, 순례자로 사용된다. 복음의 능력은 신약에서 이방인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 이 내용들은 이방인을 하나님 자녀로 선포하는 구원확장의 역사(행 2:21; 롬 10:13; 1:6; 엡 3:16), 이방인의 접붙임 역사(롬 11:7), 나그네 대접함과 선한 일의 수행(딤펴 3:2),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미치는 예수님의 사랑실천(막 12:33; 눅 10:25-37), 초대교회의 성령에 의한 이방인 복음전파 등이다.

2.2. 다문화사회와 이주민의 특성

1) 다문화사회의 개념과 유형⁸⁾

한국은 역사적으로 단일민족의 고유한 문화적인 전통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왔다. 근간에 외국인의 국내 유입 및 활동증가에 따른 다인종·다민족화 및 이에 따른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개념도 적다. 다문화사회의 법적 개념은 정립되어 있지 않고, 다만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다문화사회는 한 국가 안에 다양한 인종과 민족 출신이 함께 어우러져 구성된 상호 간에 인종, 민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들이 속한 국가의 이익이나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다하는 사회구조이다⁹⁾. 다문화사회는 여러 단일문화가 공존하며 서로 영향을 주면서 자기 나름의 문화를 유지·발전하는 다인종사회와 서로 다른 가치와 문화를 존중하는 다양성의 사회라는 복합적인 용어이다¹⁰⁾. 통상적

6) 정성하(2006), p.35.

7) 정성하(2006), p.35.

8) 조석주·박지영(2012), pp.6-10.

9) 김혜순(2007), p.15.

으로 다문화정책이 다양한 문화를 가진 다인종에 대한 지원과 배려하는 시각에서 후자의 개념이 더욱 적합하다.

다문화사회에 대한 세계적으로 합의된 기준은 없지만, 서구 선진국인 OECD국가에서 외국 이민자의 비율이 전체인구에서 5% 이상 넘는 사회를 다문화사회라고 본다. 한국은 이주민의 인구비율이 전체인구의 3% 이상을 차지하여 다문화사회에 진입하는 과정에 있다. 과거에 비해 급속히 진행되는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의 국내 증가에 따라 인종적·민족적 다양성이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현상과 더불어 이주민들의 인권보호는 물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의 필요성이 더욱 제기되어 한국 교계가 선교적인 사명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

다문화사회의 유형은 형성 배경에 따라 크게 2가지로 존재한다. 첫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타인종·타민족·타문화가 유입되는 형태이다. 세계화시대에 각 국가 또는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국제교류가 확대되고, 장·단기적으로 외국에 거주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타문화와 접촉이 활발하며 다른 인종·문화의 인정과 공존을 바탕으로 한 다문화사회를 이루는 형태이다. 둘째, 처음부터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로서 호주, 캐나다 및 미국 등을 볼 수 있다. 한국은 첫째 유형에 속하며, 경제사회적 필요에 의하여 외국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를 받아들여 이주민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다문화주의 형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2) 이주민의 특성

한국에서 이주민들에는 대략 외국인,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및 북한 이탈주민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점차 전환되면서 정착이주민이 증가하여 열린 다문화 사회적인 논의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한국 교계가 종합적인 시각에서 이주민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이주민에 대한 선교적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도움이 된다. 이주민은 한국사회에 정착하면서 전통적인 한국 사람과는 다른 여러 가지 특성들을 나타내고 있다¹¹⁾.

①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한다.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에 대한 인식은 국적, 학력 및 동기에 따라 각각 다르다. 이주민의 출신국에 대한 편견 또는 선입견이 부정적 혹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보다 저개발국가에서 온 결혼이주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혹은 편견이 강하다. 한국사회는 겉으로 다문화주의를 채택한 것 같으나, 다문화정책은 이주민의 한국정착에 중점을 두었다. 이로 인해 이주민이 자기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이해받지 못하고 자녀들도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한다. ② 한국인 여부에 대한 이주민의 자아인식이다. 일부 이주민들은 취업 혹은 결혼 목적으로 정착하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 법적으로 한국인이지만 자신이 정말 한국인으로 인식하는지는 의문을 갖고 산다. 왜냐하면, 한국사회 및 학교에는 아직도 이주민이 외국인이라는 인식이 강하여

10) 조석주·박지영(2012), p.7.

11) 강영실(2012), pp.21-25.

차별대우, 편견과 잘못된 인식이 만연되기 때문이다.

③ 이주민의 사회적응력이 떨어지고 있다. 소수의 이주민은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여 생활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다수의 이주민은 문화적 충격에 시달리며, 한국의 문화역사 지식이 부족해서 한국사회 적응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지역별로 한국사회 정착프로그램들이 개설되어 있으나, 취업 및 생활곤란 등으로 참여율이 저조하다. ④ 이주민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각하다. 상당수의 이주민은 취업이나 결혼 등으로 혼자 한국에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다. 많은 이주민은 고국의 부모나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귀화에 따른 심리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하다. 경제적인 이유로 가족에 송금하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절약생활을 해서 한국인과의 일상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 ⑤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취약한 형편이다. 다수의 이주민은 산업연수생, 근로자 혹은 결혼으로 한국사회에 정착한다. 이들의 작업현장이나 생활환경도 열악하고 힘들어서 육체적 질환이 있어도 경제적인 부담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불법 이주민들은 단지 의료취약계층 지원사업 혹은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 등의 초보적인 의료혜택을 받고 있다. 등록근로자에서 이탈하거나 불법취업의 경우에는 의료보험 혜택과는 결별하게 된다. 사회적인 활동과 일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여 두통, 요통 및 불면증을 호소하며 불안증세가 매우 심각한 것이다. ⑥ 본국 가족에 대한 연민과 자기부정이 강하다. 다수의 이주민들은 경제적 이유로 한국에 이주하고 있다. 취업과 결혼으로 한국에 정착하면, 본국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며 많은 수입금을 송금한다. 가족에 대한 연민으로 심리적 평안도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빈곤한 생활을 영위한다. 이것은 한국사회 적응을 어렵게 만들고 자기개발의 기회가 적어져 낙오자가 될 수 있다.

<표 1> 이주민의 특성과 세부내용

주요특성	특성별 세부내용
정체성 혼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인 이주민의 출신국별 부정적, 긍정적 평가의 존재 ■ 이주민의 사회문화적 특성이해 부족, 자기 정체성의 혼란
자아인식 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화 이주민의 한국인에 대한 자기인식의 결여 ■ 한국사회 이주민에 대한 차별대우, 편견, 별도인식의 만연
사회적응력의 저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적 충격 경험과 한국역사에 대한 인식의 부족 ■ 취업과 생활곤란으로 한국사회 정착프로그램에 참여 저조
정신스트레스 심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국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귀화에 따른 심리적 갈등 ■ 경제적인 취약성, 한국인과 인간관계 형성 미비
건강관리의 취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장·생활 여건의 열악, 경제적 이유로 의료서비스 회피 ■ 불법이주민 의료보험 미비, 사회적인 정신적·심리적 압박
연민과 자기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국 가정의 생계걱정과 연민으로 심리적 안정 결여 ■ 한국사회 적응 결여, 자기개발의 부족에 의한 자기부정

자료: 강영실(2012)의 참고 후 저자 재작성

III. 이주민 선교의 특성과 문제점 분석

3.1. 한국 이주민의 현황과 실태¹²⁾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2014년 1월 1일 기준 국내 거주 장기체류 외국인, 귀화자 등으로 외국인 주민은 2008년 891천명에서 2014년 1,570천명으로 증가하여 9.9%의 신장세를 보였다. 2014년 외국인 주민은 1,570천명으로 한국인구 대비 3.1% 수준으로, 대전시 인구 1,532천명 보다 많다. 외국인 주민은 2012년에 1,409천명으로 전년대비 증가율이 11.4%였고 드디어 2014년에 처음으로 1,500만명을 넘어섰다. 이것은 중국동포에 대한 재외동포자격 대상 확대, 국적요건을 갖춘 외국국적동포의 영주자격 신청 증가에 기인한다.

유형별로는 한국 국적 미취득자가 1,219천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77.7%를 차지했다. 이중 외국인근로자는 538,587명(34.3%), 결혼이민자는 149,764명(9.5%), 유학생 80,570명(5.1%)이었다. 한국 국적 취득자는 146,078명(9.3%), 외국인주민 자녀는 204,204명(13%)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81,131명(51.6%), 여성은 759,339명(48.4%)이었으며 국적별로는 중국이 843,655명(53.7%)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베트남인 185,470명(11.8%) 순서였다.

거주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31.4%(492,790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서울시 26.4%(415,059명), 경남도 6.2%(97,148명)의 분포를 보였다. 전체 외국인 주민의 63.1%가 수도권에 거주하며, 시·군·구별로는 경기도 안산시(75,137명), 서울 영등포구(58,927명), 경기도 수원시(47,237명) 순이었다. 외국인주민이 1만명 이상 거주하는 시·군·구는 49개로 지난해(44개)보다 5곳 늘었고, 주민등록인구 대비 5% 이상 거주하는 시·군·구도 2013년(22곳)보다 2곳 증가한 24개였다. 특히 안산시 원곡본동은 외국인 주민이 주민등록인구 대비 89.4%에 달하는 29,726명이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주민 자녀 중에서는 미취학아동(만6세 이하)과 초등학생(만7세 이상~12세 이하)이 83.9%를 차지했고 결혼이민자는 20대(35.2%)와 30대(29.4%)가 대부분이었다.

<표 2> 한국 외국인 주민수의 추이와 특성별 분포

항목 / 년도	2008	2010	2012	2014	연평균증가율 (2008-2014)
외국인 주민수(천명)	891	1,139	1,409	1,570	9.9%
2014년 외국인주민 유형별 구성비(%)	외국인 근로자(34.3), 외국국적동포(14.9), 기타외국인(13.8) 외국인주민 자녀(13.0), 결혼이민자(9.5), 혼인귀화자(5.8) 유학생(5.1), 기타사유 귀화자(3.5)				
2014년 외국인주민 지역별 구성비(%)	경기(31.4), 서울(26.4), 인천(5.3), 대전(1.5), 세종(0.2), 충북(2.7) 충남(4.8), 광주(1.6), 전북(2.5), 전남(2.8), 강원(1.6), 대구(2.2)				

12) 행정자치부(2014); 국민일보(2014.7.2)

	경북(4.1), 부산(3.5), 울산(2.1), 경남(6.2), 제주(1.0)
2014년 외국인주민 국적별 구성비(%)	중국(15.0), 한국계 중국(38.7), 베트남(11.8), 남부아시아(4.8) 미국(4.5), 필리핀(4.1), 중앙아시아(2.8), 일본(2.7), 인도(2.2)

자료: 안전행정부(2014)

3.2. 이주민 선교의 현황과 실태

1) 조사의 개요와 의미

KP한국교회봉사단은 2012년 8-12월에 전국의 이주민 선교 참여교회, 참여단체.기관 575개 기관에 대한 이주민 선교 전국실태조사를 시행하였다¹³⁾. 조사는 전자우편과 우편으로 발송한 설문조사로 시행되었고, 이주민 선교사역에 관련된 교회.기관.단체 총575개의 기관 중에서 총270기관이 응답하여 회수율은 47.0%를 보였다. 조사 목적은 한국 이주민 선교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실태를 분석하는 데 있었다. 이 조사는 전국적인 이주민 선교의 기초조사를 목적으로 처음 시도된 연구에서 그 의의가 있다¹⁴⁾. 이 자료는 이주민 선교의 방향과 정책을 설정하는 데 기반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 지역분포와 선교목적.형태

이주민 선교는 경기도(24.4%)와 서울(18.1%)이 전국 중 가장 비율이 높았고, 인천(8.9%), 부산(7.8%), 경남(7%), 전남(5.2%)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경기도와 서울은 이주민 숫자도 다른 지역보다 많아 실질적인 비율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민 선교를 하는 목적과 관련해서는 통전적(전도, 세계선교, 인권.삶의 질 개선, 교회개혁 등)이라고 답한 곳(28%)이 가장 많았다. 2위는 전도(25%)가 차지했고, 뒤를 이어 세계선교 19%, 인권 및 삶의 질 개선 17%, 교회개혁 8%를 기록했다.

이주민 선교형태(복수응답)는 교회 부설 28%, 이주민기관(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17%, 이주민 선교기관 16%, 복합형태(교회+선교기관) 16%, 이주민교회 10%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교회.선교 단체에서 이주민 업무 담당 실무자 수는 1명이 21%로 가장 많고, 2명 18%, 4~5명 17% 순이었으며, 없는 경우도 14%에 달했다. 자원봉사자수 역시 5명 이하가 27%로 가장 많았으며, 7명 이하의 소규모 교회.기관이 51%를 차지해 실무자 및 자원봉사자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3) 이주민 국가분포, 선교내용 및 운영프로그램

이주민 출신국가 분포(복수응답)는 중국(22%)이 가장 많았다. 필리핀(9%)과 베트남(8%), 몽골(7%)에 이어 스리랑카와 네팔, 인도네시아, 파키스탄이 각각 5% 정도 차지했다. 선교참여 내용을 보면, 이주노동자에 대한 선교가 32%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했고, 그

13) 기독교보(2013.2.28.); 국민일보(2013.2.19.)

14) KD 한국교회희망봉사단(2013), p.25.

다음은 결혼이민여성(29%)에 대한 선교였다. 다문화가정(19%), 유학생(15%), 난민(5%) 이 뒤를 이었다.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국가·지역별로 구성된 이주민 네트워크를 지원해주는 일이 20.4%로 가장 많았다. 예배와 성경공부 등 교회 프로그램 19.1%, 한글교실 등 문화프로그램 16.2%, 복지 및 인권이 각각 15.7%, 13.5% 등을 차지했다. 사역기관 소속 교단은 예장통합 32%, 예장이주노동자에 대한 선교가 32%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했다. 그 다음은 결혼이민여성 29%, 다문화가정 19%, 유학생 15%, 난민 5% 등을 점유했다. 소속교단별로 보면, 예장 통합이 33%로 가장 많고, 예장 합동 22%, 예장 고신 9%, 기독교감리회 6%, 기독교장로회와 기독교침례회가 각각 5%, 예장 백석과 예장 합신에는 각각 1%가 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 후원은 39%가 교회의 후원을 받고, 개인 후원은 30%, 지자체 프로젝트 후원 10%, 이외에도 7%는 기업의 후원을 받고 있었다.

이주노동자에 비해 결혼이주 여성이 적은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선교비율은 결혼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활동에서 더 높은 것이다. 결혼이민 여성선교가 활발한 이유에 대해 “한글과 문화교육 등 접근이 용이한 사역이 주를 이루며, 이는 결혼이주 여성 관련 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정부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이주노동자 선교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은 산재와 노동 상담 등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선교 대상인 외국인들의 출입국이 빈번하게 일어나, 힘든 사역에 비해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이다.

4) 조사의 시사점

한국 기독교 이주민 선교의 형태를 분석하여 몇가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교회부설 형태의 이주민 선교기관이 가장 높으나 그 비율은 단지 28%에 불과하다. 둘째, 이주민 기관이 이주민 선교기관(센터)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셋째, 교회와 이주민 선교기관을 동시에 운영하는 교회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넷째, 한국교단에 속한 이주민 중심의 교회들이 증가하며, 독립적인 이주민교회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독립적인 이주민교회와 한국교회 관계설정이 장차 중요한 과제가 된다. 한국 지역교회들이 세계선교와 이주민 선교를 어떻게 연결하여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지에 대한 총회차원의 선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이주민 선교형태의 장단점 및 연합문제에 대한 연구가 요망된다. 신학교에서 이주민 선교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이주민 자녀 선교를 위한 정책수립과 자원개발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정부 프로젝트 기관과 협력해 세계선교와 연계 및 확대 방안을 마련해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요구된다. 정부의 적극적 이주민 정책 및 지원센터 수립에 발맞춰 이주민사회 선교사, 이주민 국내선교사제도 수립방안을 연구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주민 교회가 노회·연회·지방회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좋다. 이제 이주민 선교는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효과적인 선교방식이다.

<표 3> 이주민 선교의 특성과 현황(2012)

항목	항목별 세부요소의 구성비(%) (N=270)
기관위치	경기도(24.4), 서울(18.1), 인천(8.9), 부산(7.8), 경남(7), 전남(5.2)
선교목적	통전적(28), 전도(25), 세계선교(19), 인권.삶의 질 개선(17), 교회개혁(8)
선교형태	교회 부설(28), 이주민 기관(17), 선교기관(16), 복합형태(선교기관+교회; 16), 이주민 교회(10)
선교참여	이주노동자(32), 결혼이민여성(29), 다문화가정(19), 유학생(15), 난민(5)
프로그램	이주민 네트워크 지원(20.4), 교회 프로그램(19.1), 문화 프로그램(16.2), 복지(15.7), 인권(13.5)
사역국가	중국 한족 (24.1), 재중동포(23.0), 필리핀 (19.9), 베트남(17.9), 몽골(15.1)
소속교단	예장 통합(33), 예장 합동(22), 예장 고신(9), 기독교감리회(6), 기독교장로회(5), 기독교침례회(5), 예장 백석.합신(2)
재정후원	교회후원(39), 개인후원(30), 지자체 프로젝트 후원(10), 기업후원(7)

자료: KP한국교회희망봉사단(2012)

3.3. 이주민 선교의 구체적 사례분석

이주민 선교의 구체적 사례는 선교의 유형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주민 선교의 유형에는 이주민 선교기관, 교회부설기관, 새터민선교기관 및 이주민 선교실패사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¹⁵⁾. 첫째, 이주민 선교기관은 크게 인도주의적 선교 혹은 복음주의 선교차원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인도주의 및 복음주의 선교차원을 강조한 기관은 ‘나섬 공동체’와 ‘지구촌사랑나눔’ 등이 있고, 인도주의적 선교차원에 강조한 곳은 ‘대전이주외국인 종합복지관’ 등이 있다. ‘나섬 공동체’와 ‘지구촌사랑나눔’은 초기에 예배없이 이주민 선교를 진행했으나 이주민의 삶에 변화가 적었다. 나중에 그 한계를 인식하고 공동체예배를 통하여 새신자 획득과 삶의 변화가 발생했으며, 더욱 훈련과 공부를 거쳐 모국으로 역파송하는 선교사역이 생겼다.

둘째, 하늘중앙교회는 정부의 이주민기관을 위탁.운영하여 재정부담 거의 없이 이주민 선교기관을 설립해서 효과적인 이주민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온누리교회는 해외선교의 일환으로 이주민 선교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대형교회가 설립한 이주민 선교기관은 교회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자원봉사자 혹은 재정부담의 어려움 없이 이주민 선교에 집중하는 선교모형이 된다. 셋째, 새터민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고 높은뜻연합교회는 선교기관으로 사회적 기업을 활용해서 북한 이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특별한 이주민 선교사례가 되고 있다.

넷째, 농촌지역의 하리교회는 이주민목회를 시행했으나 재정문제, 전문인력의 부족 및 인근단체와 사역중복 등으로 중단되었다. 이 경우에는 지역 복지시설과의 연합을 통한 효과적인 선교사역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상기한 이주민 선교 기관들의 공통적인 사역들은

15) 최신일(2015), pp.611-612.

주로 상담, 교육사업, 쉼터운영, 무료진료, 문화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주민사역 초기에 인권운동 및 사회제도개선에 집중하다가 점차 복지사업분야(의료, 교육, 문화사업)로 확대되었다. 근년에는 다문화사회의 진입에 따라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표 4> 이주민 선교의 구체적 사례분석

선교유형	선교기관/소재지	주요 특성
이주민 선교기관	나섬공동체 / 서울시 광진구	• 1992년 시작, 초기 인권운동 중점, 예배실시 • 제자양육과 역파송 선교, 다문화사역 확대
	지구촌사랑나눔 / 서울시 구로구	• 1992년, 이주민 인권운동 강조, 인근교회확대 • 신학, 의료, 교육, 문화, 방송, 장례 등 확대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 대전시 중구	• 2002년, 이주여성지원사업, 인도사업 강조 • 상담, 교육, 진료, 도서관, 사회적 기업
교회부설기관	하늘중앙교회 / 충남 천안시	• 2003년, 외국인공동체, 정부위탁 운영 • 쉼터, 외국인력지원.다문화센터, 사역자 양성
	온누리교회 안산M센터 / 경기도 안산시	• 1993년, 외국인 예배, 쉼터, 양육, 상담, 진료 • 현지사역자 양성, 이주민 역파송
새터시민기관	높은뜻연합교회 / 서울시 중구	• 2008년, 새터민 정착지원, 사회적 기업운영 • 상담, 교육, 무료진료, 문화행사 및 쉼터운영
이주민 선교실패	하리교회 / 전북 완주군	• 1995년 이주여성사역, 전문인력.재정 곤란 • 인근시설과 사역중복, 이주민 선교 중단

자료: 최신일(2015)연구와 기관 홈페이지 참고 후 저자 재작성

3.4. 이주민 선교의 문제점

한국교회에서 이주민 선교의 대한 문제점은 인식, 운영, 연합, 신학 등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¹⁶⁾. 첫째, 이주민 선교.복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하다. 이를 테면, 결혼이주 여성을 보면, 그들의 절반 이상이 대략 차상위 계층에 속한다. 자본주의사회 한국에서 이주민들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각하다. 여성 이주민의 60%가 주로 생계유지 및 자녀 교육비 목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실무자 중심으로 좋은 프로그램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실적으로 농촌지역의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제일 시급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다. 이러한 이주민들의 현실적인 과제를 외면하고 현실성이 결여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이주민 선교단체는 결혼이주여성이나 다문화가정의 심각성과 절박성을 간과한 채 이주민 선교를 진행하고 있다.

둘째, 이주민 선교사역들이 경쟁적 혹은 일방통행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주민은 지역, 민족 및 계층에 따라 다른 행태와 삶의 방식을 유지하며 살아간다. 이주민의 세부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공급자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형식적인 사업에 불과하며 이주민과의 의사소통이 부족하다. 이주민과 서로 소통하면서 상대방의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며 존

16) 황흥렬(2012), pp.232-233; 김은수(2014), pp.314-318.

중하는 태도가 부족하다. 이로 인해 이주민 선교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이주민 선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훈련이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의 다문화 정책도 결혼 이주자가정에 중점을 두며, 현실성이 적은 정부주도형 민족주의적 사회통합모델에 치중한다.

셋째,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 증가와 더불어 초기에 이주민 선교가 호기심으로 강하게 추진했으나 이제는 일상적인 선교사역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주민과의 문화차이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주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질적인 도움이 요구된다. 이주민에 대한 지역교회의 종합적인 자료조사와 심층 분석을 통한 지역맞춤형 이주민 선교 전략이 필요하다. 이것은 처음의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이주민 선교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넷째, 이주민 상호간 및 이주민과 선교단체(기관) 간에 의사소통이 부족하고 어려움이 상존한다. 다문화 가정의 결혼여성 이주민이 단기간에 걸쳐 한국사회에 적응하려면 언어·문화 차이로 의사소통이 어렵다. 출산 전에 가정의 대소사를 놓고 정신적 부담이 가중되며, 이로 인해 심리적인 충격도 크다. 이주민의 경우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이주민 복지서비스를 모르는 경우도 있다. 중앙 및 지방정부, 혹은 이주민 단체 간 의사소통이 적어 업무가 중복되고 예산낭비도 발생한다. 이를 테면, 보건복지가족부의 다문화가정지원법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다문화사회 문화지원법이 중복되고 있다.

다섯째, 다문화가정의 자녀양육과 가정폭력 등 이주민 가정문제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 한국의 초중 학교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의 집단따돌림은 일반 가정과 다른 모습으로 드러난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개인의사와 무관하게 주로 다문화 가족이라는 원인으로 발생한다. 이것은 개인적인 노력으로 해결하기 곤란하며, 사회구조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할 문제이다. 이주민의 자녀가 지속적으로 소외되면 정서적인 충격이 크고 장기적인 생활정착에도 지장을 가져온다. 이들이 한국사회에 적절하게 통합되지 못하면 장차 소외집단의 규모가 커져서 국가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될 것이다. 이것은 다문화사회에서 인종적 갈등 혹은 사회혼란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고, 국가사회의 발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실제로 경제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국제여성 이주민의 결혼으로 남편 친지의 비우호적인 환경과 정서적인 불안정은 가정폭력을 유발한다.

여섯째, 이주민 선교단체 또는 교회 간 이주민 선교에 대한 연합과 동역사역이 적다. 이주민 선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선교단체나 교회 간 협력이 이루어지고 이주민 선교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대형교회와 이주민 선교단체 간 공동프로그램의 개발이나 동역사역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주민 선교에 대한 정보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동역과 연합을 통한 이주민 선교전문가의 양성, 공동운영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전략수립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주민 관련기관 간 연합 및 동역사역이 부족하면, 사업의 중복운영, 예산낭비의 발생, 프로그램운영 종합효과의 미비, 효율적인 이주민 선교프로그램의 개발 결여 등 각종 문제점을 양산하게 된다.

일곱째, 이주민 선교전략에 대한 신학적인 통찰이 결여되어 있다. 이주민 선교에서 선교신학이 부재한 경우에 선교신앙이 너무 강조되면 모험주의 선교로 전락한다. 한국교회는 이

주민 선교에 대한 감성적 구호는 강하나 신학적인 성찰은 부족한 형편이다. 한국은 진보교단이 보수교단보다 열세하여 이주민 선교에서 진보교단은 유연한 선교활동을 지향하나, 보수교단은 이주민 선교에 집중해서 갈등과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교회에서 진보와 보수, 대형교회와 소형교회, 교파 간 분열을 극복하고 이주민 선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국 교계에서 이주민 선교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이주민 선교에 대한 신학적 성찰이 부족하면, 이에 대한 신학계와 교회들이 서로 반목하며 이론과 실천의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신학계는 교회들의 폐쇄성에 반감을 갖고, 교회는 실천적 능력이 결여된 신학이론에 거부감이 강하다. 이주민 선교에 대한 한국 교회들의 열정과 긍정적인 생각도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이주민 선교신학이 먼저 정립되어야 한다.

<표 5> 이주민 선교의 문제점 분석

주요 문제	세부 사항
이주민 선교의 이해부족	• 이주민 선교.복지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부족, 형식적인 선교
일방통행식 선교사역	• 이주민 선교사역들이 경쟁적 혹은 일방통행식으로 전개
이주민 선교사역의 일상화	• 이주민 선교가 처음 호기심에서 일상적인 선교사역으로 변모
단체 간 의사소통의 결여	• 이주민 상호간, 이주민과 선교단체 간에 의사소통 부족
다문화가정 대책의 소홀	• 다문화가정의 자녀양육, 가정폭력에 대한 대책 부족
기관 간 협동.동역의 부족	• 이주민 선교단체,교회 간 이주민 선교에 대한 연합.동역사역 적음
이주민 선교의 신학정립	• 이주민 선교전략에 대한 신학적인 통찰 결여

자료: 황흥렬(2012)와 김은수(2014) 연구 참조 후 재작성

3.5. 이주민 선교와 교회의 본질적 과제

첫째, 한국 교회들이 과연 ‘이주민을 가족처럼 사랑하는가’하는 것이다. 이주민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주민을 이해하고 교회 안에서 바로 서도록 섬기고 교회에 정착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아시아 결혼이주민과 이주근로자 대다수는 기독교와 접근성이 매우 낮은 국가 출신들이다. 대표적인 불교국가는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스리랑카이고, 가장 많은 결혼이주민인 중국과 베트남은 모두 공산국가이며 유교문화를 가진 나라이다. 일본, 태국, 필리핀의 일부는 통일교를 통해 국제결혼 한 가정이며, 기타 나라들은 이슬람국가 출신들이다. 기독교에 대한 접촉이 가능한 국가 출신은 필리핀이 전부이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접촉이 전무한 결혼 이주민과 근로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더욱 많은 노력,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다. 먼저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인 결혼 이주민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이들의 욕구에 응답해야 한다. 욕구에 대한 응답은 스스로가 해결하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주민이 먼저 한국사회에 적응하여야 하며, 교회에 적응하려면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설부르고 성급한 전도는 오히려 다문화가정과의 단절을 가져올 수 있다.

둘째, '이주민은 우리교회의 교인인가' 하는 것이다. 누구나 이주민도 자기교회 교인이라고 생각하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주민은 교인이 아니라 선교의 대상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 이주민 몇 명이 오는 것은 포용하지만, 자기교회가 이주민 교회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주민에게 오로지 자기교회에 등록하도록 강요한다.

그러나 이주민과 다문화가정을 포용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체질을 바꾸는 결단이 필요하다. 결단과 각오가 없이는 다문화가정과 이주 근로자에 대한 선교는 점차 그 여건이 어려워진다. 처음부터 교회 전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씩 변화해야 한다.

셋째, '다문화선교를 누가 언제 할 것인가'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몇 년의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다문화선교를 시작하고 매진한다. 이주민 선교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당면한 내일이다. 매년 세계선교사대회에서는 이주민 선교에 대한 중요성이 언급되고 있다. 이주민을 통한 역파송 선교, 이주민네트워크를 활용한 디아스포라 선교 등이 선교의 매우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다. 한국사회에서 자율적인 전도활동은 한국교회가 성장하게 된 환경이었지만, 이제 거꾸로 타종교의 역습에 직면하고 있다. 불교와 안식교는 최근 몇 년간 가장 공격적으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해왔다. 이주민 선교는 이제 한국교회의 당면과제이며 중요한 사명으로 부각되어 있다.

IV. 이주민 선교를 위한 한국교회의 대응방향

4.1. 이주민 선교에 독일교회의 대응방향 사례

독일교회는 여전히 교구중심의 교회제도를 유지하며 지역차원의 선교활동은 익숙하지 않다. 독일교회의 이주민 선교는 공교회적 차원인 독일 개신교회(EKD)와 주교회(22개 주교회) 차원에서 실시한다. 이 교회들은 선교정책의 수립과 재정지원을 통해서 국내외 선교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한다. 지역의 개교회(Gemeinde) 차원에서 선교활동은 약하고 주로 교인들의 돌봄과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교회 외부의 선교단체들은 독일 이민교회와 협력하여 선교활동을 지원한다. 독일교회의 이주민 선교는 독자방식 보다는 이민교회와 협력방식을 통해 수행하고 있다. 독일교회가 이주민 선교에 접근하는 방식은 3가지로 구분한다¹⁷⁾.

첫째, 독일 개신교회와 주교회는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이주민 정착을 위해 디아코니아로 접근한다. 둘째, 독일 자유교회 및 복음 선교단체가 타문화권 선교의 관점에서 독일거주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는 방식이다. 셋째, 이주민교회와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상호도전과 학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서로의 발전과 성숙을 위하여 협력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을 통해서 독일교회는 다양한 이주민 선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활동들은 대략 사회적응을 돕는 활동, 타종교와 이웃으로서 평화로운 공존과 대화모색, 망명자의 인권보호와 돌봄을 위한 선교활동, 독일 이주민교회와 협력을 통한 선교, 독일교회의 이주민 선교에 대한 선교학적 성찰과 대안모색 등을 들 수 있다.

17) 한국일(2009), p.64

4.2. 인식전환 차원의 대응방향

1) 이주민과 다문화에 대한 인식 틀의 전환

바람직한 이주민 선교는 한국교회와 기독교인이 이주민과 개별 영역에서 사회통합과 대상의 주체로서 공존과 연대를 모색하는 패러다임이 변화가 요구된다. 이것은 일방적인 태도.관점에서 벗어나 상호 의존과 소통에 근거한 상생적 발전관계를 지향하는 것이다. 과거에 한국사회는 이주민을 이중시선을 가지고 보았다. 사실상 이주민은 인종, 국가 및 국적과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이중적인 시선을 가져서는 안된다. 따라서 한국에서 이주민 선교의 출발점은 이중시선을 극복하고 이주민과 다문화에 대한 인식의 틀을 전환하는 데 있다¹⁸⁾. 이주민은 피부색, 인종 및 국가로 판단하는 것보다 공존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라보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이주민 선교에 대한 올바른 사고와 관점이 형성될 것이다.

2) 이주민 선교에 대한 담임목회자의 인식과 자세변화

한국에는 정부, 민간, 종교단체 등 이주민 사업의 일회성이 강하며 사업 중복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도 있다. 이주민 사업이 있어도 우리사회에는 여전히 차별과 편견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일상의 삶을 나누려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교회는 지역 이주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노력에 앞장서는 것이 필요하다. 즉 한국교회의 현실을 감안하면, 이주민 선교의 중요성에 대한 담임목회자의 인식과 지역교회를 통한 섬김의 모습이 확산되어야 한다. 교회가 지역 이주민을 위해서 한글교실, 한국문화 적응프로그램, 이주민자녀 돌봄 및 이주민 기술교육 등 다양한 사업도 전개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담임목회자의 인식이 중요하며, 교회종직자의 이주민 선교의 중요성에 대한 사고전환이 있어야 지역교회가 협력할 수 있게 된다.

3) 세계관의 변화와 복음의 수용

세계관은 인간 세계를 이루는 인생의 의의나 가치에 관한 통일적인 견해이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절대자를 추구하는 영혼의 갈망이 있으므로, 기독교에서 우선 타종교를 일반은총의 관점에서 보는 견해가 필요하다¹⁹⁾. 이주민 선교의 본질은 이주민의 세계관을 변경시키는 데 작업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주민의 눈높이에 적합한 선교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주민을 변화시키는 총체적 회복자는 예수그리스도이심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주민을 내적으로 치유하여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고 제자화를 통해서 그들의 세계관을 변화시켜야 한다. 성경에서도 나그네와 타국인을 대하면서 사랑의 실천과 노력이 선행되는 경우에 열매를 맺는다고 언급한다(신 10:19; 레 19:34; 마 22:39; 막 12:31; 갈 5:14). 따라서 이

18) 박흥순(2007), p.182.

19) 정미경(2012), pp.28-32.

주민의 세계관이 변화되는 경우에 복음의 수용이 수월해진다.

4.3. 선교적 차원의 대응방향

한국은 이미 다문화사회에 진입하여 한국 교회는 선교적 차원에서 그들과 공생하는 사회와 신앙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 이주민은 단순한 구원 및 선교의 대상보다는 구원.선교의 주체로 세우고, 이를 위한 통적인 선교와 협력사업이 요구된다²⁰⁾. 이주민 선교는 한국교회에서 핵심적인 선교로 부각되며, 지역교회가 통적인 선교를 담당하면서 이주민교회의 설립과 협력사업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

1) 복음을 통한 인도적 복지의 지역사회 실현

이주민 선교는 복음으로 인도적 복지개념을 지역사회에 실현하는 것이다. 교회는 이주민의 인권향상을 위하여 상담과 의료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주민은 경제적인 이유와 고용불안으로 의료혜택이 부족하며 주거여건도 열악하다. 교회 및 선교단체는 이주민을 위한 잠자리와 쉼터를 제공하고 무료급식을 통하여 선교할 수 있다. 이주민은 조국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므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하며 좌절을 경험한다. 지역교회는 이주민을 위한 문화활동이나 다양한 행사를 시행하여 선교의 기회로 활용하고 이주민을 포용하는 사회적 신앙공동체를 마련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2) 이주민의 양육.역파송에 의한 선교영역의 확대

이주민 선교에서 예배, 양육 및 역파송을 통한 복음주의적 역할을 확대한다. 한국사회에서 이주민 선교단체가 단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머무르는 경우들도 많다. 이제 이주민 선교를 단지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전개하기 보다는 이주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양육하여 전도자로 역파송하는 것이 소중하다. 이를 위해서 국가별 이주민 예배를 마련하며, 여기에 현지 이주민을 이주민교회의 사역자로 세워서 문화적인 선교의 토착화를 도모한다. 교회공동체는 복음의 본질과 형제애의 실천에 충실하고 생활의 전체 영역에 걸친 교제가 이루어지며, 갱신을 통한 선교사역에 정진해야 한다²¹⁾. 오늘날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비용, 언어, 문화 및 자녀교육 등 다양한 문제들로 제약이 따른다. 이주민을 선교사로 양육해서 본국에 역파송하면, 이러한 제약들을 극복하고 효과적인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따라서 이주민을 복음적인 시각에서 구원과 선교의 객체에서 주체로 전환하여 양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3) 세계화시대에 한국교회의 이주민.열방선교를 위한 기반확충

한국기독교는 이주민은 물론 지구촌에 한인 디아스포라를 통하여 역동적인 선교가 동시

20) 류장현(2010), pp.41-66

21) 하도균(2013), pp.566-567.

에 발생하도록 사전에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가 세계화 시대에 맞추어 국제적인 교류가 가능하도록 어린이를 교육해야 한다. 한국의 이주민자녀들이 성장하여 본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전략수립과 양육훈련이 요구된다. 한국기독교는 타문화권 및 타종교 간에 대화 및 이해가 더욱 필요하다. 이제 한국기독교는 문화적 우월감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성경적인 바른 가치관을 형성해야 한다. 한국기독인이 영적 성숙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복음을 삶에 실천하여 주변을 변화시키고 좋은 영향을 끼쳐야 한다.

4.4. 교육적 차원의 대응방향

다문화사회에서 한국교회는 국가의 교육복지의 담론에 참여하며, 지역사회와 연대 및 연계하는 교육적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교회는 이주민 자녀의 교육을 위한 복지의 비전, 목표 및 가치를 기독교적 시각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교회는 양극화된 사회구조를 변화하여 평등한 교육복지를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교회가 이주민 선교를 위한 교육적 선교사업에는 다문화가정 교육, 한글성경 및 문화적응 교육, 직업훈련 교육 등이 있다. 사회복지기관 및 NGO단체의 이주민 지원사업은 경제사회적 자립에 집중되어 이주민이 크게 경험하는 정신적·인성 교육은 등한시하고 있다. 지역교회에서 하는 한글성경교육은 이주민의 전인적인 구원과 인성 함양에 아주 도움이 된다. 한국문화 적응교육은 이주민의 문화적 충격 극복, 상호문화의 이해 및 정서적 안정도모에 크게 기여한다. 이주민을 위한 교육은 소수인원에 국한된 일방적인 교육에서 벗어나서 상호간 이해와 소통을 통한 교육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차원에서 대응방향을 모색해야 한다²²⁾.

1) 이주민 선교전문가의 양성지원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의 증가 속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공공 및 민간단체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다양한 다문화가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학계와 사회에서 다문화가족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이 필요하다. 실제로 이주민을 위한 지원들은 주로 한글교육 혹은 한국문화지도, 방문교육지도가 대다수이다. 이러한 지원들은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교사 등에 주로 의존하여 다문화에 대한 전문지식·기술을 구비한 인력을 체계적으로 갖추지 못한다.

한국사회 현장에 필요한 다문화 전문인력에 대한 개념 규정 혹은 전문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교회는 나그네에 대한 보호를 강조를 성서적 입장에서 이주민에 대한 전문적 소양을 가진 전문자원봉사자를 양육할 수 있다. 전문인 양성프로그램은 이주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사회 정착상담, 인종차별과 폭력 예방, 청소년 프로그램개발을 중심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이주민의 현장경험을 통해서 실제사례와 정보를 공유하는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교회 자체적으로 전문성을 신장시킨다.

22) 최봉도(2013), pp.710-711.

2) 사회적인 올바른 다문화교육의 필요성과 확대

이주민 선교는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이 이주민과 상호의존적 관계라는 상호이해와 소통 확장하는 데서 출발한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에서 한국사회의 구성원, 한국교회가 다문화가족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교육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주민이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해도 한국사회의 대다수 구성원이 사고 및 관점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크지 않다. 따라서 기존의 다문화가족 중심의 소수자 교육보다는 한국사회와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수자 교육으로 확대해야 한다.

우선 교회성도를 대상으로 이주민 선교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좋다. 다문화사회에서 이주민 선교도 해외선교의 중요요소로 성도에 교육하며, 이주민도 하나님이 창조한 소중한 존재라는 인식과 세계관을 교육시킨다. 효율적인 이주민 선교를 위해서 타문화권 및 타종교에 대한 이해, 공존 및 관용의 자세도 요망된다. 한국사회와 교회도 개방적인 자세를 가져서 이주민들과 공존하면서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한국교회가 앞장서야 한다. 이주민들도 한국인과 동등하게 생활하도록 한국교회가 선교적 차원에서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를 테면, 관련 교육기관에서 다문화사역자를 양성하는 것도 다수자 교육을 확대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한국사회와 교회가 이주민과 공생하려면, 배제와 차별이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을 주는 지 필수적으로 체험해야 한다²³⁾. 한국사회의 이주민 선교는 한국교회와 기독교인이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다문화교육을 받고 이주민을 바라보는 인식전환을 경험하며 출발한다. 한국기독교 총회와 교단에서 연합·연대하여 다문화사회의 이해, 이주민 선교 세미나, 이주민 선교사 양성과정을 올바르게 진행하는 다문화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요청된다.

3) 이주민 선교 및 다문화 기독교교재의 개발·확산

목회자 교육, 이주민 선교사 양성교육, 교회성도 교육, 및 다문화교육 교재의 개발이 요구된다. 다문화사회에서 목회자 교육을 통하여 해외선교와 이주민 선교의 중요성을 인식시킨다. 이주민 선교 전문가를 양성하며, 세계화된 다문화 사회에서 이주민의 타문화권 선교 전략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타문화권 종교를 더욱 이해하여 이주민 선교 전략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소중하다.

다문화 기독교 교재를 개발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 기독교 교재에 다문화 내용을 첨가하여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교회차원에서 교육한다. 다문화 요소를 가진 인물을 교회 교재에 수록하여 한국 어린이들이 다문화속에 살아가는 창조신학을 가르쳐야 한다. 다문화적인 기독교 교재를 통하여 한국 가정 및 다문화가정 어린이간에 상호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신앙적 인성교육을 시행한다. 한국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사회에서 사회통합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 교회가 선교적, 성경적 관점에서 사회통합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다문화 기독교교육 교재의 개발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23) 오현선(2009), p.270.

4.5. 연합·동역 차원의 대응방향

1) 정부 및 NGO단체의 연합방향

다문화사회의 진입에 따라 정부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다문화 지원기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다문화 지원사업을 확대했다. 공모를 통한 다문화기관의 위탁운영은 적은 예산을 들여 효과적으로 선교하기 위한 교회의 이미지에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교회가 정부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사회복지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사회복지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²⁴⁾.

일회성 지원사업의 활성화는 이주민 선교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이다. 이를 테면, 기업 혹은 복지재단에서 일정 금액, 물품, 음식, 컴퓨터, 리모델 사업 등으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복지기관을 방문하여 도와주고 있다. 교회가 NGO단체를 운영하고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교회가 새터민, 결혼 이주여성 등을 위해서 선교적 차원에서 NGO와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경제적 자립기반을 제공한다.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구비한 대형교회들은 전문 인력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여 재능 기부 혹은 이주민 선교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성도의 전문자원봉사는 이주민 선교에 후원자, 동역자 및 협력자가 되는 것이다. 한국에서 2006년부터 정부의 다문화정책이 실시된 이후에 전국 각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생겨났다. 이로 인해 이주민 선교단체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고, 시설, 재정 및 인력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저하되었다.

이제 한국교회들은 대형교회와 교단들이 적극 동역하여 전문적인 시스템과 체계를 갖추고 이주민 선교를 전략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한국교회희망봉사단이 그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이주민 선교는 이제 한국교회가 다시 갱신할 수 있는 블루오션으로 교단차원에서 체계적·전문적인 준비와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정부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은 많으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원은 다소 부족하다. 한국교회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선교사역을 확대한다면, 기독 이주민의 양육과 역파송을 통한 세계선교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된다.

2) 협력과 연대의 필요성 증대

한국사회에서 이주민 선교는 교회와 사역자가 방향에 따라 지향점이 달라 지역 및 사역 유형별로 협력하고 연대해야 한다. 이를 테면, 이주민 선교는 목회자와 사역의 관점에 따라 다르며 선교, 목회, 복지 및 인권 차원에서 보면 다양하게 나타난다. 다양한 이주민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양성 속에 공존과 연대, 조화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이주민 선교를 위한 중점방향을 결정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협력과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 이를 테면, 지역별로 이주민 선교협의회를 조직하여 새로운 탈바꿈을 시도할 수 있다. 그 사례로 2009년 결성된 호남지역 다문화선교협의회를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에 소재한 교회 및 이주민센터가 협력과 연대를 위한 실질적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것은 재정투자 및 행사의 중

24) 조귀삼(2010), pp.77-104.

복을 방지하여 예산절약과 사업의 실효성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주민 선교사업 유형별로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3) 맞춤형 지원과 협력체계의 강구

이주민 선교는 교회가 위치한 지역의 이주민과 이주민 선교기관에 대한 상세한 자료수집과 분석에서 출발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교회 주변지역에 적합한 맞춤형 이주민 지원과 협력은 물론 바람직한 이주민 선교를 달성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에 거주하는 다양한 이유와 목적이 있듯이, 이를 지원 및 협력하는 교회와 기독교인의 역할도 다양하다. 이주민에 대한 자세한 조사와 분석은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선교를 위해서 요구된다²⁵⁾. 이주민 선교단체들이 정부, 지자체 위탁기관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운영프로그램과 차별화되는 이주민 선교를 위한 교육내용을 발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4) 교회 홈페이지이용 교육과 네트워크를 통한 소통증진

정보화 사회에서 홈페이지는 개인, 조직이 온라인 웹상에서 이용하는 누리집이다. 오늘날 고도정보화 사회에서 홈페이지는 기업 소개와 사업, 자료공유, 커뮤니티 형성, 교육장소, 소통공간 및 네트워크 형성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그 영역도 확대되어 있다.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나는 교회 홈페이지는 다양한 용도와 목적으로 사용하는 무한한 사이버공간이다. 교회 홈페이지에 지역이주민을 위한 다문화공간을 만들면 이주민 선교와 복지증진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이주민들은 본국과의 왕래가 어려워져 교회 홈페이지 가상공간을 활용하여 교류를 확대하며, 국내 이주민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다. 교회의 사이버공간은 이주민에게 정보 및 상담장소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교회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위기상황에 놓인 경우에 신속히 대처하는 능력도 증대시킨다.

4.6. 교회수준의 지원전략

1) 심리적·안정적 지원방안²⁶⁾

이주민은 독신 혹은 가족 동반으로 한국에 정착하면서 심한 외로움과 고독을 경험한다. 의사소통이 불완전한 이주민은 한국인을 만나는 기회도 적고 정서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하다. 교회의 중요한 기능은 성도간의 교제와 지역사회와 소통이다. 지역교회가 주변 이주민과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영적인 평안을 전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2) 인적·물적 지원방안

한국의 교회는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여 인적·물적 자원들이 다소 풍부하다. 성도들은 사

25) 박흥순(2013), p.204.

26) 강영실(2012), pp.27-33.

회 각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근무하는 인재들이 많고, 고령화 사회에 따라 우수한 시니어 기독인도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지역의 이주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인적자원이며, 이주민을 위한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주민 자녀의 학업지도, 이주민의 긴급한 의료서비스 및 이주민의 실직 등에 교회의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직·간접적인 도움과 지원을 줄 수 있다.

3) 사회적응의 지원

한국경제의 급속한 성장으로 취업목적으로 입국한 이주민들도 상당수 있다. 이들 중에 임금체불 혹은 비인격적 처우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개인과 고국에 있는 부양가족의 생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준다. 교회는 이주민에게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도와주고 안내할 수 있다. 교회 성도들의 기업과 연계해서 취업추진, 직접고용, 취업지도 및 취업알선이 가능할 것이다. 교회가 사회적 기업을 설립·운영하여 이주민의 경제적 자립에 도움을 주는 것도 좋다. 사회적 기업 활동은 교회기능을 보완하는 장점이 있다. 언어 혹은 사회문화적 갈등으로 한국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이주민의 자녀를 위해서 대안학교의 설립도 모색할 수 있다. 특히 이주민 자녀들은 한국사회에 정착할 미래세대로서 이들의 인격부터 사회적응에 필요한 지식의 습득은 초등학교부터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가 이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을 확대하여 이들이 장차 고등교육을 받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표 6> 이주민 선교와 한국교회의 대응방향

영역	세부적 대응전략
인식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민과 다문화에 대한 인식 틀의 전환 • 이주민 선교에 대한 담임목회자의 인식과 자세변화 • 세계관의 변화와 복음의 수용
선교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음을 통한 인도적 복지의 지역사회 실현 • 이주민의 양육·역파송에 의한 선교영역의 확대 • 세계화시대에 한국교회의 이주민·열방선교를 위한 기반확대
교육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민 선교전문가의 양성과 지원 • 사회적인 올바른 다문화교육의 필요성과 확대 • 이주민 선교 및 다문화 기독교교재의 개발·확산
연합·동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및 NGO단체의 연합방향, 협력과 연대의 필요성 증대 • 맞춤형 지원과 협력체계의 강구 • 홈페이지이용 교육과 네트워크를 통한 소통증대
교회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적 안정적 지원방안, 인적·물적 지원방안, 사회적응의 지원

V. 결 론

본 연구는 한국사회 이주민 선교의 특성과 한국교회의 대응방향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이주자에 대한 한국교회의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은 사회통합과 지역사회의 발전은 물론 선교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을 사례로 이주민 선교의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종합적인 대응방향을 강구하는 데 있다. 중요한 연구내용은 서론, 이주민 선교와 다문화사회의 개요, 이주민 선교의 특성과 문제점 분석, 이주민 선교를 위한 한국교회의 대응방향,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관련연구의 문헌고찰, 보고서.통계자료의 분석 및 관련전문가 의견청취 등의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이주민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가거나 다른 지역에서 옮겨와서 사는 사람이다. 이주민 선교는 이주민의 구원, 훈련 및 파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총체적이며 전인적인 종합노력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은 경제사회적 이유로 외국의 이주민이 많이 유입되어 다문화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은 정체성, 자아인식, 사회적응력 및 스트레스 등 측면에서 다양한 특성과 문제들을 갖고 있다. 2014년 한국거주 외국인인 총인구의 3.1% 점유하며, 주로 수도권에 밀집하여 거주한다. 이주민 선교는 주로 수도권지역에서 통전적.전도목적을 가지고 교회부설기관 및 이주민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주된 프로그램은 이주민 네트워크 지원과 교회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며, 여기에는 대개 이주노동자와 결혼 이주여성이 참여하고 있다. 이주민 선교는 주로 이주민 선교기관에 의하여 주도되며, 교회부설 기관이 부문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처음에는 인권운동과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었으나 점차 복지영역으로 확대되었으며, 농촌지역의 이주민 선교는 어려움에 놓여 있다. 이주민 선교의 문제점들은 대략 이주민 선교의 이해부족, 일방통행식 선교사역, 이주민 선교사역의 일상화, 관련단체 간 의사소통의 결여, 다문화가정 대책의 소홀, 기관 간 협동.동역사역의 부족, 이주민 선교의 신학정립 미비 등으로 드러나고 있다.

상기한 이주민 선교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이주민 선교에 대하여 다각적인 대응방향을 강구해야 한다. 이주민 선교를 위한 인식전환의 측면에서 교회의 대응방향에는 이주민과 다문화에 대한 인식 틀의 전환, 이주민 선교에 대한 담임목회자의 인식과 자세변화, 세계관의 변화와 복음의 수용 등이 포함된다. 선교전략 입장에서 한국교회는 복음을 통한 인도적 복지의 지역사회 실현, 이주민의 양육.역파송에 의한 선교영역의 확대, 세계화시대에 한국교회의 이주민.열방선교를 위한 기반확대 등의 대응방향을 설정해서 이주민 선교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주민 선교의 활성화에는 교육측면의 정책수립이 소중하다. 이에 따라 한국교회는 이주민 선교전문가의 양성과 지원, 사회적인 올바른 다문화교육의 필요성과 확대, 이주민 선교 및 다문화 기독교교재의 개발.확산 등의 대책방향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주민 선교의 발전에는 연합.동역의 차원에서 한국교회가 수행하는 정부 및 NGO단체의 연합방향, 협력과 연대의 필요성 증대, 맞춤형 지원과 협력체계의 강구, 홈페이지이용 교육과 네트워크를 통한 소통증대 등의 대응방향이 요구되고 있다. 끝으로 이주민 선교는 개별교회의 수준에서도 심리적 안정적, 인적.물적 및 사회적응의 지원방안 등을 다각도로 마련하여 이주민 선교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거시적 입장에서 이주민 선교의 실태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하여 교회종사자에게 실무적인 선교정보를 제공하고 연구학자에게 중요한 선교정책적 자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세부적인 이주민 선교

실행전략의 강구, 이주민 선교신학의 성찰 및 연합·동역 사역을 통한 이주민선교의 네트워크화 전략 등에 대한 연구가 향후 요망되어진다.

참고문헌

- 강영실, 이주민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한국교회의 지원방안에 대한 소고, 교회사회사업 저널, 제19권, 2012. 8, pp.7-37.
- 김은수, 사회복지와 선교, 대한기독교서회, 2014.
- 류장현, 다문화사회의 떠돌이 민중에 대한 신학적 이해, 신학사상 제48권, 2010 봄호, pp.41-66.
- 박천응,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실비판과 정책적 과제, 선교와 신학 제29집, 2012, pp.13-56.
- 박홍순, 한국사회의 이주민, 대안적 정체성 그리고 성경해석, 선교와 신학 제20집, 2007, pp.155-184.
- 박홍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지역의 이주민 자녀현황과 지역교회 역할 연구, 선교와 신학 제34집, 2014, pp.208-239.
- 박홍순, 호남지역 다문화선교의 현황과 과제, 선교와 신학 제32집, 2013, pp.179-212.
- 서연숙, 다문화사회 진입에 따른 한국교회 대응방안 연구, 신학과 실천 제11호, 2014, pp.481-510.
- 오현선, 다문화 사회의 소통과 공존을 위한 기독교 평화교육, 참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편저, 다름의 평화 차이의 공존, 서울: 동연출판사, 2009.
- 전석재, 한국교회의 이주민 선교, 선교신학 제29집, 한국선교신학회, 2012, pp.187-213.
- 정미경, 다문화사회를 향한 한국기독교의 이주민 선교, 복음과 선교 제16집, 2012.12, pp.9-38.
- 정성하,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자기인식과 디아스포라 미션, 선교와 신학 제17집, 2006, pp.13-37.
- 조귀삼, 다문화 에큐메니즘 현상에 따른 문화충돌과 사회통합 도구로서 한국교회의 역할, 복음과 선교, 제13호, 2010, pp.77-104
- 조석주·박지영,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정책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2012-03 제460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2.12.
- 최봉도, 이주민 가정의 교육복지를 위한 교회의 역할, 신학과 실천 제36호, 2013, pp.566-567.
- 최신일·황병준, 한국교회 이주민 선교실태 및 선교방향성 연구, 신학과 실천 제43호, 2015. 2, pp.595-622.
- 황홍렬, 부산경남지역의 이주민 현황과 이주민 선교의 과제 - 결혼 이주여성/다문화 가족을 중심으로, 선교신학 제29집, 한국선교신학회, 2012, pp.215-253.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통계, 2014.

KD 한국교회희망봉사단, 이주민 선교 기초조사보고서, 2013.